

한가위에 드리는
가정예배



2009년 10월 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추석감사예배 순서

예배초대 ----- 인도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 아침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시편136:1-3 ----- 인도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 송 ----- 588(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다같이

교독문 ----- 105번 ----- 다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도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회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기도 ----- 맙은이

성 경 ----- 예배소서 6:1-4 ----- 인도자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
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떨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
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설 교 ----- 믿음의 큰 유산 ----- 가족중

찬 송 ----- 593(312)장. 아름다운 하늘과(1~4절)----- 다같이

주기도 ----- 다같이

<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

1. 예배 전 기도자와 설교자를 미리 선정합니다.
2. 예배는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인도합니다.
3. 가족 중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설교 전
에 마련합니다. 그분에 대해 인상 깊었던 일들이나 함께 나눌 만한
일화 등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4. 예배 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한 마디씩 나누도록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결혼이나 취업 이야기는 삼가주세요 ^ ^)

* 본 순서지는 재생용지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큰 유산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요 질서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인간의 모든 생활과 보다 큰 사회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서 있고 복된 가정이 된 것은 먼저 하나님 때문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 주신 유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남겨 주신 유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가정은 신앙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이모저모로 풍요함을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과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좋은 가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 살게 된 것은 부모님이 진실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화목이라는 유산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만으로 살 수 없고,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 사람다워지고 가정다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남달리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남겨 주신 믿음의 유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참 존재의 가치관이 보전되며 참 교육이 실시되고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나눔의 장, 서로 도와주는 협동과 화목의 장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생각하며,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풍요로움과 친지들과의 기쁜 만남과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감사히 여기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